

A case of sarcoidosis following successful management of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

해운대 백병원 내과

최은준, 김양욱, 박봉수, 이유진, 박시형

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(FSGS)는 이차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, 쿠싱증후군과 sarcoidosis는 연관성이 적은 병입니다. 이 증례는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(FSGS)와 cushing syndrome이 같이 진단된 환자에서 sarcoidosis 치료 후 경과에 대한 내용입니다. 30세 여성의 전반적인 부종 및 고혈압으로 응급실 통해 입원한 환자는 ACTH independent cushing 증후군 및 right adrenal adenoma으로 진단되어 renal biopsy 진행하였고 FSGS 확진되었습니다. rt, adrenalectomy 및 hydrocortisone으로 경과 호전되었으나, 6개월 뒤 dyspnea 및 multiple nodule at wrist, elbow으로 외래 통해 입원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non-caseating granuloma with sarcoidosis으로 진단되었습니다. 이후 methylprednisolone 치료 진행하였습니다. 이 증례는 FSGS, cushing's syndrome and sarcoidosis가 동반된 환자였으며, High cortisol level이 면역저하되었으며, 그 결과로 억제되어 있던 sarcoidosis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 이에 따라 적절한 cortisol secretion이 회복될 시 following up 검사들로 면역이 억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이에 따라 숨겨져있는 병을 평가할 때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질환들을 같이 감별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

